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rs

두산아트센터 프로그램

DOOSAN ART CENTER  
Program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HOPE: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20.11.19 — 2.21	HOPE: THE UNREAD BOOK AND LIFE
연극 안녕, 여름	4 — 5	GOODBYE, SUMMER
뮤지컬 마마,돈크라이	5 — 8	MAMA, DON'T CRY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	9 — 11	THE CAPONE TRILOGY
뮤지컬 팬레터	11.30 — 22.3.27	Fan Letter

Space111

두산아트랩 2021: 공연		
연극 카르타고	1.21 — 1.23	CARTHAGE
연극 동맹 아테네	1.28 — 1.30	ALLIANCE
연극 밤에 먹는 무화과	2.18 — 2.20	At night, Nobody's hotel
음악극 어느 별 좋은 날	2.25 — 2.27	I had a Nice day
연극 뜻밖의 여자-탈 연습	3.4 — 3.6	Unexpected Woman -Mask exercise
연극 클래스	3.11 — 3.13	CLASS
다원 펭귄어패럴 radio edition ver.1	3.18 — 3.20	Penguin Apparel radio edition ver.1
판소리 오버더떼창: 판소리 합창 가능성 탐구	3.25 — 3.27	Over the Crowd-singing of Pansori
음악 마이노-뒷전거리편	4.1 — 4.3	Mi-nyo-After party for Daed

두산인문극장 2021: 공정함		
연극 웰킨	5.4 — 5.22	The Welkin
연극 편입생	6.1 — 6.19	Transfers
연극 당선자 없음	6.29 — 7.17	None Elected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김정 신작	10.5 — 10.23	New Work by Jeong Kim
음악극 윤미현 신작	11.9 — 11.27	New Work by Mihyun Yun

DAC Artist		
연극 김수정 신작	12.7 — 12.25	New Work by Sujung Kim

공동기획		
연극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4.10 — 4.25	Pigtail Hair and IMF
연극 산책하는 침략자	7.31 — 8.15	Before We Vanish

두산갤러리 서울		DOOSAN Gallery Seoul
두산아트랩 2021: 전시	1.13 — 2.20	DOOSAN ART LAB 2021
이우성 개인전	3.3 — 3.31	Woosung Lee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14 — 5.12	DOOSAN Humanities Theater Special Exhibition

이형구 개인전	5.26 — 6.30	Hyungkoo Lee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7.14 — 8.18	DOOSAN Curator Workshop Exhibition
김경태 개인전	9.8 — 10.16	Kyoungtae Kim
오종 개인전	11.10 — 12.18	Jong Oh

두산갤러리 뉴욕		DOOSAN Gallery New York
이윤이 개인전	1.14 — 2.13	Yunyi Yi
오종 개인전	3.4 — 4.3	Jong Oh
김주원 개인전	4.22 — 5.22	Juwon Kim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s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 — 12.31	DOOSAN Curator Workshop
두산인문극장 2021: 공정함	4.26 — 6.21	DOOSAN Humanities Theater 2021: Fairness
두산아트스쿨: 미술	7.1 — 7.29	DOOSAN Art School: Fine Arts
두산아트스쿨: 공연	10.7 — 11.4	
	7.30 — 8.20	DOOSAN Art School: Performing Arts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7.1 — 12.4	DOOSAN Art School: Workshop

공모 프로그램

공연		Performing Arts
DAC Artist	1.4 — 1.27	DAC Artist
공동기획	5.10 — 6.9	Space111 Jont Project
두산아트랩: 공연	6.14 — 7.14	DOOSAN ART LAB: THEATRE

미술		Fine Arts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 — 3.16	DOOSAN Curator Workshop
두산아트랩: 전시	6.14 — 7.14	DOOSAN ART LAB: EXHIBITION

**공연**  
DAC Artist  
공동기획  
두산아트랩: 공연

1.4 — 1.27  
5.10 — 6.9  
6.14 — 7.14

**Performing Arts**  
DAC Artist  
Space111 Jont Project  
DOOSAN ART LAB:  
THEATRE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두산아트랩: 전시

3.1 — 3.16  
6.14 — 7.14

**Fine Arts**  
DOOSAN Curator Workshop  
DOOSAN ART LAB:  
EXHIBITION

**DAC Artist**  
DAC Artist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모기간

2021년 1월 4일(월) ~1월 27일(수) 오후 5시까지
-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최대 1억 원)  
– 공연장(Space111) 4주, 연습실 6주  
–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 홍보마케팅
- 공연기간

2022년 9~10월
-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학교작품 외 2개 작품 이상 창작활동 경험자(작품은 유/무료 제한 없음)  
☆ 장르 제한 없음
- 인원

2명  
☆ 개인만 지원 가능
-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 최종발표

2021년 2월 중
- 제출서류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선택:  
– 작업계획서  
– 포트폴리오(약력 포함, 별도 양식 없음, PDF 10MB 이하, 영상은 공연소개자료 내 링크로 첨부)

**공동기획**  
두산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작품을 지원합니다.  
공동기획 작품은 Space111 무료 대관 및 소정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합니다.

- 공모기간

2021년 5월 10일(월) ~6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작품당 1천만 원)  
– 공연장(Space111), 부대장비  
– 하우스 운영 인력  
※ 선정단체 부담  
– 제작/홍보마케팅/티켓/공연 운영  
– 참여 배우/스태프 공연자보험 가입
- 공연기간

2022년 7~8월, 12월
- 대상

두산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Space111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품  
☆ 자격/장르 제한 없음  
☆ 재공연 작품 가능  
☆ 최소 10회차 이상
- 작품수

2편
-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 최종발표

2021년 7월 중
-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자료(별도 양식 없음, PDF 10MB 이하, 영상은 공연소개자료 내 링크로 첨부)

### 두산아트랩: 공연

두산아트랩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술가들은 두산아트랩을 통해 발전 과정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이후 작품 개발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모기간** 2021년 6월 14일(월) ~  
7월 14일(수)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7백만 원)  
- 발표 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공연기간** 2022년 1~3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장르 제한 없음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인원** 9팀  
☆ 개인만 지원 가능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최종발표** 2021년 8월 중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자료(별도 양식 없음, PDF 10MB 이하, 영상은 공연소개자료 내 링크로 첨부)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문의** 02-708-5003, 5023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공모: 미술

###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젊은 큐레이터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큐레이터들은 1년 동안 워크샵을 통해 현대미술 이론과 현장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워크샵 후에는 두산갤러리 서울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팅 기회를 지원합니다.

**공모기간** 2021년 3월 1일(월) ~  
3월 16일(화)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참여(2021년 4월 ~ 2022년 5월)  
- 공동기획전시 지원(두산갤러리 서울, 2022년 7월~8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최근 2년 이상 전시기획이나 진행 참여

**인원** 3명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및 전시기획안 프리젠테이션

**최종발표** 2021년 3월 중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및 전시기획안 (자유주제, 장르 제한 없음)

### Open Call: Fine Arts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문의** 02-708-5050  
doosangallery.seoul@  
doosan.com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두산아트랩: 전시

두산아트랩은 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시로 매년 개최합니다.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지원합니다.

**공모기간** 2021년 6월 14일(월) ~ 7월 14일(수)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두산아트랩 기획 전시 참여(2022년 1 ~ 2월)  
- 제작지원비(1명(팀)당 3백만 원)

**대상** - 만 35세 이하  
- 한국 국적  
- 개인전 1회 이상

**인원** 5명(팀)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최종발표** 2021년 9월 중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포트폴리오(약력포함, 별도 양식 없음, pdf 10MB 이하, 영상은 포트폴리오 내 링크로 첨부)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문의** 02-708-5050  
doosangallery.seoul@doosan.com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두산아트센터 패키지 2021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공연을 취소하거나 무료로 전환하여 패키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패키지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 Space111 마니아 패키지권(4편) /상반기

**가격** 10,000원(100명 한정)

**티켓오픈** 2021.2.16(화) 오후 4시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판매기간** 2021.2.16(화) - 2.28(일)

**해당공연** (50% 할인)

연극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4.10 - 4.25

연극 웰킨 5.4 - 5.22

연극 편입생 6.1 - 6.19

연극 당선자 없음 6.29 - 7.17

### Space111 마니아 패키지권(4편) /하반기

**가격** 10,000원(100명 한정)

**티켓오픈 및 판매기간**

추후 공지(2021년 6월 예정)

**해당공연** (50% 할인)

연극 산책하는 침략자 7.31 - 8.15

연극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김정  
신작 10.5 - 10.23

음악극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윤미현  
신작 11.9 - 11.27

연극 DAC Artist 김수정 신작  
12.7 - 12.25

### 변경사항

변경 전 해당 공연 전체 선 결제(연간 패키지)

변경 후 패키지권(10,000원) 구매 후 공연별 티켓오픈 후 패키지 할인가 결제(상/하반기 별도 구매)

☆ 패키지권(10,000원)에는 공연별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혜택

-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공연 50%할인(1인 1장, 해당 공연에 한함)
- 공연별 선예매(일반오픈 48시간 전, 해당 공연에 한함)
- 두산아트센터 아트상품 증정

### 예매방법

패키지권 구매(10,000원) → 해당 공연 티켓오픈 시 패키지할인가로 예매 및 결제(50%할인)

### 유의사항

- 패키지권 구매자에 한해 각 공연별 티켓오픈 시 선예매를 진행합니다. (공연별 선예매는 일반 티켓오픈 48시간 전입니다.)
- 공연별 티켓오픈 일정은 상이하며, 선예매 이후 매진 시 예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일정은 홈페이지, 개별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 공지됩니다.)
- 패키지권 구매 후 반드시 개별 공연 티켓을 결제하셔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 패키지권 환불은 2021년 2월 28일(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환불 기간 이후 및 공연별 예매 내역이 있을 경우 취소 불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 연기 및 취소 시 패키지권(10,000원) 환불이 불가합니다.

DAC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DAC Artist

We discover and select young artists and support for their creative activities.

두산아트랩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OOSAN ART LAB

We supports young artists to enable their experimentation endeavors. Also we research program for developing new works.

두산레지던시 뉴욕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6개월 동안 뉴욕 첼시 지역에 위치한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합니다.

DOOSAN Residency New York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vides young promising artists working in Korea with private studio space and housing for six months in the Chelsea Art District in New York City.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젊은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합니다.

DOOSAN Curator Workshop

DOOSAN Curator Workshop is designed to guide and support young Korean curators and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만들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DOOSAN Artist Award

Established in 2010 to honor the intention and philosophy of DOOSAN's Founder Park Toopyung who devoted himself to cultivating talent, this award recognizes outstanding young artists under age 40 with extraordinary practices in the field of performing and visual arts.

DAC Artist

DAC Artist는 공연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2022년부터 적용)

DAC Artist 프로그램 신작 제작(1편)  
공연제작비(최대 1억원), 홍보마케팅 지원  
공연장(Space111) 4주, 연습실 6주 지원

☆ 공모기간: 2021.1.4~1.27

지원 아티스트

Artists

김수정 극작가·연출가  
〈이갈리아의 딸들〉

Sujung Kim Playwright/Director  
〈EGALIA’S DAUGHTERS: A Satire of the Sexes〉

윤성호 극작가·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Sungho Yoon Playwright/Director  
〈Not a Dream Play〉  
〈The Lonely, The Tired, The Sad〉

이승희 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Seunghee Lee Pansori Artist  
〈In a Dream –I, A Hitchhiker with a Reason〉  
〈In a Dream〉

양손프로젝트 박지혜 연출  
양조아 배우  
손상규 배우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Went Dark〉, 〈폭스파인더〉,  
〈죽음과 소녀〉

Yangson Project Park Jihye Director  
Yang JoA Actress  
Son Sangkyu Actor  
Yang Jongook Actor  
〈My Eyes Went Dark〉, 〈Foxfinder〉,  
〈Death and the Maiden〉

이경성 연출가  
〈워킹 홀리데이〉, 〈비포 애프터〉

Kyungsung Lee Director  
〈Walking Holiday〉, 〈Before After〉

양태석 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Taeseok Yang Drum Artist  
〈Drum Quest〉

김은성 극작가  
〈뿔〉

Eunsung Kim Playwright  
〈Mudflat〉

여신동 아트디렉터  
〈마이 아이즈 Went Dark〉,  
〈폭스파인더〉, 〈나는 나의 아내다〉,  
〈배수의 고도〉, 〈목란언니〉, 〈뿔〉,  
〈모비딕〉, 〈디 오써〉

Shingdong Yeo Art Director  
〈My Eyes Went Dark〉, 〈Foxfinder〉,  
〈I am my own wife〉,  
〈Haisui no Koto〉, 〈Sister Mokran〉,  
〈Mudflat〉, 〈Moby Dick〉,  
〈The Author〉

성기웅 작가·연출가  
〈가모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븐우리 절문날〉

Kiwoong Sung Playwright/Director  
〈Karumegi〉,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Our Joyful Young Days〉

이자람 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_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Jaram Lee Pansori Artist  
〈A Pansori Short Story\_Joo Yo-seop, An Ugly Person/Murder〉, 〈Sacheon-ga〉

서재형 연출가·한아름 작가  
〈청춘, 18대 1〉

Jaehyung Seo Director  
Ahreum Han Playwright  
〈Youth, 18:1〉

## 두산아트랩: 공연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을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발표 장소(Space111/연습실), 부대 장비,  
소정의 제작비

☆ 공모기간: 2021.6.14~7.14

### 지원 아티스트

신진호 <카르타고>  
김도영 <동맹 아테네>  
신호진 <밤에 먹는 무화과>  
너나들이 <어느 별 좋은 날>  
푸른수염 <뜻밖의 여자>  
진주 <클래스>  
신소우주 <펭귄어패럴 radio edition ver.1>  
박인혜 <오버더테창: 판소리 합창 가능성 탐구>  
신승태 <마이노-뒷전거리편>

서정완 <앵커>  
김연주 <양질의 단백질>  
글과무대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추태영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김명환 <하이타이>  
박현지 <폐지의 역사>

## DOOSAN ART LAB: THEATRE

DOOSAN ART LAB provides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of works of art  
in various forms in order to discover  
creative and experimental works that  
have great potential.

### Support

Performance venue, equipment, and a  
fixed production cost are provided

### Artists

2021 Jinho Shin <CARTHAGE>  
Doyoung Kim <ALLIANCE>  
Hyojin Shin <At night, Nobody's hotel>  
Me and You and Everyone  
<I had a Nice day>  
The Blue Beard Collectives  
<UNEXPECTED WOMAN>  
Jinju <CLASS>  
shinsowoozoo <Penguin Apparel  
radio edition ver.1>  
Inhye Park <Over the Crowd-singing  
of Pansori>  
Seung-tae Shin <Mi-nyo-After party  
for Daed>

2020 JeongWan Seo <The Anchor>  
Yeonjoo Kim <Quality Protein>  
geulmoo <Existence, Viability and  
Egoism>  
Taeyoung Choo <Do you remember  
my death>

2019 MyungHwan Kim <HAITAI>  
Hyeonji Park <History of Discarded  
Paper>

김정 박희은 최희진 <기록을 찾아서:  
연기를 해야지 교태만 떨어져 되겠느냐>  
프로젝트 고도 <아빠 안영호 죽이기>  
프로젝트 XXY <여기에는 메데이아가 없습니다>  
원지영 <원의 안과 밖: 탄생비화>

2019

Jeong Kim, Hee-eum Park,  
Heejin Choi <Finding the Trace:  
A Korean classical actress, Bok  
Hae Sook>  
Project GODOT <Kill Ahn Young Ho>  
Project XXY <There is no Medeia  
here>  
Jiyoung One <In and Out of the  
One: The Origin Story>

남현우 <척하면 척>  
종이인간 <종이인간>  
EG <퐁크툼>  
김희영 <방울목 프로젝트>  
丙 소사이어티×김한결 <의자, 눈동자,  
눈먼 예언자>  
허나영 <영적인 탐구 여행사(靈)>

2018

Hyunwoo Nam <Chuck>  
The Paper man <The Paper man>  
EG <Punctum>  
Heeyoung Kim <Bang-Wol-Mok  
project>  
丙 Society × Kim Hankyul  
<The Chairs, The Eyes, and a  
Blind Prophet>  
Nayoung Huh <0 travel agency>

최윤석 <유리거울>  
파랑곰 <제로섬 게임>  
김지선 <딥 프레젠티>  
오재우 이희문 장현준 <삼각구도>  
박서혜 <대안 가정 생태 보고서>  
해보카 프로젝트 <캣트라인>

2017

Yoonsuk Choi <Glass Mirror>  
Theatric Company Bluebear  
<Zero-sum Game>  
Jisun Kim <Deep Present>  
Jaewoo Oh, Heemoon Lee,  
Hyunjoon Chang <Triangular  
structure>  
Seohye Park <The mode of  
alternative family>  
HaVokA Project <Cut/ine>

이승희 이향하 <여보세요>  
황이선 <앨리스를 찾아서>  
정동욱 <디지털 네이션>  
신유청 <소리의 威力위력>  
장현준 <몸으로 거론한다는 것>

2016

Seunghee Lee, Hyangha Lee  
<Excuse me>  
Esun Hwang <Finding Alice>  
DongUK Jeong <Digital Nation>  
Yucheong Shin <The Power of  
Sound>  
Hyunjoon Jang <Discussion  
through the Body>

파랑곰 <치킨게임>  
유목적 표류 <유목적 표류>  
적극 <다페르티투 스튜디오>  
김동화 조선희 김지선 <미제리코르디아>  
이보람 <여자는 울지 않는다>

2015

Theatric Company Bluebear  
<Chicken Game>  
Nomadic Drift <Nomadic Drift>  
Zuck Geuk <Dappertuttostudio>  
Donghwa Kim, Sounhyong Cho,  
Jisun Kim <Misericordia>  
Boram Lee <Women shed no tears>

정진새 <브레인 컨트롤> 아해프로젝트 <고도리를 기다리며>	2015	Jinse Jeong <Brain control> Ah-hae Project <Waiting for GODOThori>
양손프로젝트 <오셀로> 안은미세컨드컴퍼니 <생활活무용> 비빙의 젊은 연주자들 <굿을 바라보는 3인의 시선> 지호진 <왕의 의자> 이자람 <판소리 단편선_주요섭 추물/살인> 극단 바바서커스 <외투, 나의 환하고 기쁜 손님> 이파리드리 <별일없이 화려했던> 전진모 윤성호 <이런 꿈을 꾸었다> 카입 황정은 이경화 <타토와 토>	2014	Yangson Project <Othello> Eun-me Ahn Second Company <Life Dance> Be-Being's Young <The Gazes of Three People Watching Gut> Hojin Jee Play <King's Chair> Jaram Lee <A Pansori Short Story_ Joo Yo-seop, An Ugly Person/ Murder> Baba Circus <The Overcoat, My Bright Dear Visitor> Efalidri <It Was Glamorous Without Incident> Jinmo Jun, Sungho Yoon <This is the Dream I Dreamed> Kayip, Jungeun Hwang, Lee Kyunghwa <Tato & Toe>
민새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김혜경 김기범 정완영 <신진안무가전> 여신동 <사보이 사우나> 김아람 <우리들의 언어영역> 이경성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미미 시스터즈 <시스터즈를 찾아서> 성기웅 <가모메> 김제민 <노마일기> 창작집단 독 <당신이 잃어버린 것> 하림 <해지는 아프리카>	2013	Saerom Min <A Small Good thing> Hyekyoung Kim, Kibum Kim, Wanyoung Jung <Young Choreographers> Sindong Yeo <Savoy Sauna> Kim Ahram <Frolicked with Literature> Kyungsung Lee <Practice of Seoul – Model, House> Mimi Sisters <How Are You Sisters?> Kiwoong Sung <Karumegi> Jaemin Kim <An angry horse's diary> Creative group Dock <Something You Lost> Hareem Musical Puppet <Africa at Sunset>
양손프로젝트 <죽음과 소녀> 정가악회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김동연 <심야식당> 이곤 <트루 러브> 김한내 <SOUND 필수불가결劇 ear_TH> 이수인 <왕과 나> 양지원 호프치앙 <트래블링 홈타운>	2012	Yangson Project <Death and the Maiden> Jeong Ga Ak Hoe <I Tell You> Dongyeon Kim <Late Night Restaurant> Gon Lee <True Love> Hannae <SOUND ear_TH> Suln Lee <The King and I> Jiwon Yang, Hope Chiang <Traveling Hometown>

이영석 <수다연극-청춘수업>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2012	Youngseok Lee <Talk Theatre –Class for the Young> Taroo <Pansori Hamlet Project>
이경성 <24시-밤의 제전> 이동선 <숲 속으로> 박해성 <믿음의 기원> 신유청 <The Zoo Story> 조용신 <모비딕> 김은성 <목란언니> 류주연 <지금 연습 중입니다>	2011	Kyungsung Lee <24 Hours– A Night Festival> Dongsun Lee <Into theWoods> Haesung Park <Origin of Trust> Youngshin Cho <The Zoo Story> Cho Yongshin <Moby Dick> Eunsung Kim <Sister Mokran> Juyeon Ryu <On Practicing>
성기웅 <소설가 구보씨의 1일> 현수정 <Passion> 추민주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	2010	Kiwoong Sung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Soojeong Hyun <Passion> Minjoo Chu <The House with a Fig Tree>

두산아트랩: 전시

두산아트랩은 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시로 매년 개최합니다.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두산아트랩 기획 전시 참여(두산갤러리 서울), 제작지원비(1명(팀)당 3백만 원)

☆ 공모기간: 2021.6.14~7.14

DOOSAN ART LAB: EXHIBITION

DOOSAN ART LAB is an exhibition held every years with the aim to discover and support promising new artists in the art field. It hopes to shed light on the future paths of the selected artists and support their careers.

Support

Group exhibition at DOOSAN Gallery Seoul and overall cost related to the exhibition

지원 아티스트	Artists		
김세은, 박정혜, 오연진, 오희원, 이준아	2021	Seeun Kim, Junghae Park, Yeonjin Oh, Heewon Oh, Juna Lee	
권현빈, 림배지희, 배혜음, 이가람, 강기석, 박선호, 신정균, 이은희	2019	HyunBhin Kwon, Limbai-jihee, Hejum BÄ, Karam Lee, KiSeok Kang, Sunho Park, JungKyun Shin, EunHee Lee	
노혜리, 손현선, 우정수, 임영주, 조혜진	2017	Hyeree Ro, Hyunseon Son, Jeongsu Woo, Youngzoo Im, Hyejin Jo	
기술기, 배운환, 이수성, 전현선, 조범석, 최병석	2015	Seulki Ki, YoonHwan Bae, SooSung Lee, Hyunsun Jeon, Beomseok Cho, ByeongSeok Choi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한국 작가들에게 6개월 간 독립된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입주작가에게는 두산갤러리 뉴욕 개인전과 더불어 레지던시 입주 기간 중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현지 미술 관계자 및 관객과의 교류와 보다 폭넓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OOSAN Residency New York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vides emerging Korean artists with private studio space and housing for six months. Our support includes a solo exhibition opportunity and various programs that allow the artists to interact with the art scene and audiences in New York and have broadened cultural experiences.

지원 아티스트	Artists		
오종, 김주원	2021	Jong Oh, Juwon Kim	
박경률, 우정수, 이윤이, 최윤	2020	KyungRyul Park, Jeongsu Woo, Yunyi Yi, Yun Choi	
권하윤, 임영주, 장서영, 황수연	2019	Hayoun Kwon, Youngzoo Im, SeoYoung Chang, SueYon Hwang	
김희천, 기술기, 박광수, 배운환, 이호인	2018	Heecheon Kim, Seulki Ki, Gwangsoo Park, YoonHwan Bae, Hoin Lee	
권용주, 오민, 윤향로, 장파, 최수양	2017	Yongju Kwon, Min Oh, Hyangro Yoon, JangPa, Xooang Choi	
강동주, 박재영, 안정주, 유현경, 이윤성, 이은실	2016	Dongju Kang, JaeYoung Park, Jungju An, Hyeonkyeong You, Yunsung Lee, Eunsil Lee	
김민애, 김영나, 백정기, 이혜인, 정지현, 차재민	2015	Minae Kim, Na Kim, Jungki Beak, Hyein Lee, Jihyun Jung, Jeamin Cha	
김상돈, 김지은, 이완, 장보윤, 장지아, 전소정	2014	Sangdon Kim, JiEun Kim, Wan Lee, Boyun Jang, Jia Chang, Sojung Jun	

문성식, 박주연, 유승호, 이소정, 이재이, 함진	2013	Sungsic Moon, JooYeon Park, Seungho Yoo, Sojung Lee, Jaye Rhee, Jin Ham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박세진, 이지현, 정희승	2012	Donghee Koo, Siyeon Kim, MeeNa Park, Sejin Park, Jihyun Lee, Heeseung Chung
김기라, 김인배, 민성식, 박윤영, 이동욱, 이주요	2011	Kira Kim, Inbai Kim, Songsik Min, YoonYoung Park, Dongwook Lee, Jewyo Rhii
권오상, 김인숙, 백승우, 성낙희, 홍경택	2010	Osang Gwon, InSook Kim, SeungWoo Back, Nakhee Sung, KyoungTack Hong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2009	Hyungkoo Lee, Suejin Chung, Uram Choe

##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젊은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3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1년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세미나·워크샵으로 현대미술 이론과 현장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교육이 끝난 후, 3명의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해 1년 간의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큐레이팅 기회를 갖게 합니다.

☆ 공모기간: 2021.3.1~3.16

### 지원 큐레이터

지원 큐레이터	Curators	
맹나현, 전민지, 정해선	2020	Nahyun Maeng, Minji Chun, Haesun Chung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	2019	Suzy Park, JiHyung Park, Lim Cheon
유은순, 유지원, 이진	2018	Eunsoon Yoo, Jiwon Yu, Jin Lee
김민정, 송고은, 신지현	2017	Minjung Kim, Goeun Song, Jihyun Shin
김수정, 최정윤, 추성아	2016	Sue Kim, Jeongyoon Choi, Sungah Serena Choo
이설희, 장혜정, 최희승	2015	Seolhui Lee, Hyejung Jang, Heeseung Choi
김소영, 박보람, 박은지	2014	Soyoung Kim, Boram Park, Eunji Park
이성희, 장순강, 홍이지	2013	Sunghee Lee, Sunkang Chang, Leeji Hong
김소영, 윤민화, 최다영	2012	Michelle Soyoung Kim, Minhwa Yun, Michelle Dayeong Choi
강소정, 김수영, 조은비	2011	Sojung Kang, Sooyoung Kim, Eunbi Jo

## DOOSAN Curator Workshop

DOOSAN Curator Workshop is designed to guide and support young Korean curators and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Three curators are selected every year, and the program consists of contemporary art lectures, workshops, and seminars led by professionals of diverse fields in contemporary art. After the workshop, the three participants ar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ir studies and research by co-organizing an exhibition.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공연 부문 지원

상금 3천만 원, 신작 공연 제작비 지원

DOOSAN Artist Award

This award was established in 2010  
to honor the intend and philosophy  
of DOOSAN's Founder Park Toopyung,  
who devoted himself to cultivating  
talent. This award recognizes the  
contribution of outstanding young  
artists under the age of 40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and fine arts.

Performing Arts Support

Prize of 30 million KRW, The Cost  
of Production for Creative New  
Work

윤혜숙 연출가	2020	Hyesook Youn Director
윤미현 작가	2019	Mihyun Yun Playwright
김정 연출가	2018	Jeong Kim Director
이연주 작가·연출가 〈인정투쟁; 예술가 편〉	2017	Yeonjoo Lee Playwright/Director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rtist〉
구자혜 작가·연출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 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	2016	Jahye Khoo Playwright/Director 〈This is only for the audiences, DOOSAN ART CENTER streaming service theatre〉
이자람 국악창작자 〈노인과 바다〉	2015	Jaram Lee Pansori Artist 〈The Old Man and the Sea〉
이경성 연출가 〈러브 스토리〉	2014	Kyungsung Lee Director 〈Love Story〉
성기웅 작가·연출가 〈20세기 건담기建談記〉	2013	Kiwoong Sung Playwright/Director 〈Meandering from The 20 <sup>th</sup> century〉
김은성 작가 〈썬샤인의 전사들〉	2012	Eunsung Kim Playwright 〈Sunshine Warriors〉

윤한솔 연출가 〈1984〉	2011	Hansol Yoon Director 〈1984〉
김낙형 작가·연출가	2010	Nakhyung Kim Playwright/Director

미술 부문 지원		Fine Arts Support
상금 3천만 원, 두산갤러리 서울 전시 지원		Prize of 30 million KRW, Exhibition at the DOOSAN Gallery Seoul
김경태	2020	Kyoungtae Kim
김주원	2019	Juwon Kim
이윤이	2018	Yunyi Yi
권하윤	2017	Hayoun Kwon
이호인, 박광수, 김희천	2016	Hoin Lee, Gwangsoo Park, Heecheon Kim
강정석, 오민, 유목연	2015	Jungsuck Kang, Min Oh, Mok-Yon Yoo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	2014	Dongju Kang, Jungju An, Yunsung Lee
김민애, 김영나, 차재민	2013	Minae Kim, Na Kim, Jeamin Cha
김상돈, 김지은, 장지아	2012	Sangdon Kim, JiEun Kim Jia Chang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	2011	JooYeon Park, Sojung Lee, Jaye Rhee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2010	Donghee Koo, Siyeon Kim, MeeNa Park

교육 프로그램

두산아트센터는 문화예술에서부터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ducational Programs

Ranging from art and culture to the humanities, DOOSAN ART CENTER's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are designed with intriguing themes and activities aimed for the general public.

**두산인문극장** 4.26 — 6.21  
매년 하나의 주제에 대한 공연, 전시, 강연 등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하는 통합 기획입니다.

**DOOSAN Humanities Theater**  
This is an integrated project encompassing plays and lectures, and aims to bring social issues to the forefront in the first half of each year.

**두산아트스쿨: 미술** 7.1 — 7.29  
국내외 현대예술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무료 강좌입니다.

**DOOSAN Art School: Fine Arts**  
This program offers free lectures and encourages the public appreciation of contemporary art originating from Korea and overseas.

**두산아트스쿨: 공연** 7.30 — 8.20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자,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DOOSAN Art School: Performing Arts**  
This program focuses on exploring works by organizers and artists in performing arts.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7.1 — 12.4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예술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창작 기회를 제공합니다.

**DOOSAN Art School: Workshop**  
In this program, young aspiring artists partake in projects and trainings in the arts conducted by performing artists working in the field.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에 이어 2021년에는 ‘공정함’을 주제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강연을 진행합니다.

공정함	2021	Fairness
강연 기회의 공정	4.26	
강연 도덕경제학, 공정에 관련한 실험	5.3	
강연 불공정에 대한 감정과 판단	5.10	
강연 장애는 공정의 방해물인가	5.31	
강연 직장과 조직에서의 공정함	6.7	
강연 교육의 안과 밖	6.14	
강연 오늘날 공정함에 대한 감각	6.21	
푸드	2020	FOOD
강연 역사와 문화		이욱정, 전중환, 정재훈, 김호
강연 농축산업적 관점		이도현, 김태호
강연 윤리와 정신심리학		김성한, 김율리

아파트	2019	Apartment Nation
강연 한국, 돈, 생활, 정치, 욕망, 기억, 골목, 미래		박철수, 이진우, 정현목, 박해천 김민섭, 정재호, 임형남, 노은주, 강재호

DOOSAN Humanities Theater brings together sociological, humanities and artistic imagination on humans and society. Each year, a theme is selected to be discuss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performances, exhibitions, lectures, and artist talks. Past subjects include “Big History” in 2013, “The Age of Distrust” in 2014,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in 2015,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in 2016, “Conflict” in 2017, “Altruist” in 2018, “Apartment Nation” in 2019, “FOOD” in 2020, and The theme for 2021 is “Fairness”. A variety of lectures on humanities, sociology, and science regarding this subject will be conducted.

이타주의자	2018	Altruist
강연 동서양 역사와 철학을 통해 본 이타주의자		이상수, 이진우
강연 사회과학을 통해 본 이타주의자		최정규, 김현경
강연 자연과학을 통해 본 이타주의자		김준홍, 김학진, 남창훈, 홍성욱
갈등	2017	Conflict
강연 사회인류학적 갈등		김예란, 김현경, 백태웅, 이상희, 이현재
강연 정치경제학적 갈등		구갑우, 김연철, 송지우, 홍기빈
강연 생태학적 갈등		박지형
영화 무산일기, 밀그램 프로젝트, 대담해줘		박정범, 마이클 알메레이다, 김연실
모험	2016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강연 새로운 상상		다카노 히데유키, 전치형, 김용대, 이상길
강연 문학 속 모험		박상진
강연 영역의 확장		윤신영, 이정모, 이두갑, 정인철, 이관수
영화 잊혀진 꿈의 동굴,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인투 더 와일드		베르너 헤어조크, 이호재, 손 펜
예외(例外)	2015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강연 과학의 눈으로 본 예외		이충형, 임태연, 홍성욱
강연 역사와 일상 속에서 만난 예외		강상중, 김기창, 김호
강연 정치와 사회 국면의 예외		김항, 박상훈, 최정규
영화 들개, 소셜포비아, MJ/바캉스/ 침입자		김정훈, 홍석재, 김희진/이현주/박근범
불신시대	2014	The Age of Distrust
강연 타인과의 관계		민승기, 서동진
강연 사회와 체제		박해천, 최장집, 한병철, 홍기빈
강연 공동체의 모습		강진호, 김진석, 심보선
영화 계보와 그림자, 이웃의 소리들,		마노엘 드 올리베이라, 클레버 필류,
영화 지젝의 기묘한 이데올로기		소피 파인즈 & 슬라보예 지젝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2013	Big History: from Big Bang to Big Data
강연 Big Bang: 우주와 생명의 기원		이덕환, 이명현
강연 Big Life: 자연과 인간		강호정, 최재천
강연 Big Net: 문명과 인류의 미래 지형		데이비드 크리스천&조지형
영화 리바이어던, 현재의 바깥에서		루시엔 캐스팅-테일러, 베레나 파라벨, 안드레이 우지카

신은, 혹은 자연은 공정하지 않다. 만물은 다르게 생겼고 다른 위치를 갖는다. 고르고 균일할 것 같은 원자 상태에서조차 에너지의 상태가 다르다. 원자를 벗어나 단위가 커질수록 다른 점이 늘어나고, 차이는 더 벌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 이치인 셈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쓰임도 다르고 역할도 따로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와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그것은 ‘공정함’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이가 다른 형태와 능력을 지녔지만, 그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한 인격체라는 것은 모순이 없는가? 모든 것이 똑같은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두 곳의 온도가 같다면 둘 사이에 열은 흐르지 않는다. 두 곳의 농도가 같다면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한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차이와 불균형은 긴장을 낳고 그로 인해 세상이 움직인다. 이 세계가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면서도 ‘공정함’을 구현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 분야에서 ‘공정함’에 대한 강렬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이것의 폭 넓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대, 성별, 인종 등 근본적인 다름을 어떻게 ‘공정함’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움직임을 어떻게 미래를 향한 힘으로 다듬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DOOSAN Humanities Theater  
2021: Fairness

God, or nature, is not fair. Everything looks different and has a different position. The state of energy is heterogenous even in an atomic state that's likely to be even and uniform. The larger the unit outside the atom, the greater the difference, and this gap widens. It makes sense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has a different look. And depending on appearance, everything has a different use and role.

However, complex problems occur when this problem is applied to humans, becaus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and basic spirit of our society, humans must all be “equal before the law” which is based on “fairness”.

Everyone in the world has different looks and abilities; isn't it absurd that everyone should be equal and cast the same vote as per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 world where everything is the same is a dead world. If the temperatures of the two places are the same, no heat flows in between. If the concentration of the two places is the same, the force to eliminate their difference would not be applied. Differences and imbalances create tension, which causes the world to move. What does it mean for this world to move vigorously with energy while implementing fairness?

The reason this question is asked is because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fairness in various fields, and a broader analysis of this idea is needed. How can we embrace fundamental differences such as generation, gender, race, etc. in fairness when we have no choice but to live with each other? How can we refine the intense movements that take place in it with power directed at the future? DOOSAN Humanities Theater attempts to explore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공정함	2021	Fairness
강연 기획의 공정	4.26	
강연 도덕경제학, 공정에 관련한 실험	5.3	
강연 불공정에 대한 감정과 판단	5.10	
강연 장애는 공정의 방해물인가	5.31	
강연 직장과 조직에서의 공정함	6.7	
강연 교육의 안과 밖	6.14	
강연 오늘날 공정함에 대한 감각	6.21	

## 두산아트스쿨: 미술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별 평론가나 아티스트를 초청해 무료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합니다.

## DOOSAN Art School: Fine Arts

This Program is a free lecture program that is open to the public audiences who are interested in art, enriching their comprehension of contemporary art trends in Korea and abroad. By inviting and presenting lectures by art critics and artists, the program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Korean contemporary art and expands the base of Korean contemporary art on the international stage.

미정	2021	남성택, 정윤아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2019	정윤아
현대미술의 탄생-서양19세기 미술		양정무
건축, 토탈아트 혹은 레디메이드	2018	남성택
귀족문화로 읽는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		양정무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서양 근대 문명과 미술	2017	양정무
또 다른 건축을 향하여	2016	남성택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
건축과 미술의 밀월	2015	남성택
한국근대미술-전통과 문명의 갈림길에서		박영택
현대미술의 세계	2014	강희경, 김상규, 남성택, 신혜영, 정윤아
내일을 향한 답문-한국의 현대미술가에게 묻고 듣는다 2		임근준
여기서 뛰어라!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박영택
서양 현대미술, 아시아를 만나다	2013	정윤아
내일을 향한 답문-한국의 현대 미술가에게 묻고 듣는다		임근준
새로운 사진사	2012	박상우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 그리고 내일		김성원, 김홍희, 김희진, 심상용, 임근준
전통이란 코드로 읽어보는 한국현대미술	2011	박영택
20세기 아방가르드 사진		박상우
에고트립-예술가처럼 자아를 확장하는 법		임근준
현대미술강좌	2010	정윤아
이것이 현대적 미술 2/2		임근준
한국대중음악산책	2009	강현
테마로 읽는 한국현대미술		박영택
이것이 현대적 미술 1/2		임근준
이것이 오늘의 미술	2008	임근준
현대미술의 감상과 이해		박영택

## 두산아트스쿨: 공연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현장 이야기. 2017년부터는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자,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업할 때 무슨 고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들어봅니다.

## DOOSAN Art School: Performing Arts

This program focuses on exploring works by organizers and artists in performing arts.

미정	2021	
뮤지컬 프로듀싱과 브랜딩 전략	2019	오훈식
연극의 연습, 연습의 연극 - 배우 편		성수연
아주 조금 다른 짓 해보기		김태형
뮤지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이선영, 한정석
연극, 만남의 예술	2018	김재엽
무대 위의 빛		최보윤
집요한 놀이의 미학		이은결
음악 본능		하림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이 있을까?	2017	박근형
춤추는 몸 이야기		안은미
무대와 미술		여신동
공동작업의 힘		양손프로젝트
우리는 왜 인간 본성의 '악'을 주목해야 하는가	2016	정유정
내가 배운 요리, 삶의 요리 - 왜 우리는 요리에 열광하는가		박찬일
잡념과 온전함		백현진
순간을 살아가		고선웅
그대의 인생의 막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	2015	장유정
우리 모두가 미뤄두는 3가지의 질문		이종범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르겠는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120분		이자람
사는 동안 멋지게		박칼린
젊음의 시간들 소설가	2014	천명관
행복한 이기주의자		최정원
소중한 사람들		손현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정이현
Smallness		장영철
세상과 만나는 걸음의 속도에 관하여		안은미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예술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창작 기회를 제공합니다.

DOOSAN Art School: Workshop

A workshop program designed to promote robust engagement with artists in their creative spaces. The program provides creative opportunities for young individuals aspiring to become artists, informing them of various ways to reinforce their creative artistic pursuits.

희곡, 연기·연출 워크숍 예정	2021	미정
희곡 워크숍	2020	윤미현, 윤성호
연기·연출 워크숍		김보경, 김수정
무대미술 워크숍		진기종
희곡 워크숍	2019	윤성호
연기·연출 워크숍		김보경, 김수정
무대미술 워크숍		여신동
판소리 워크숍		이승희, 이향하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연강홀. 2007년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 했으며, 뮤지컬, 연극, 무용 등을 선보입니다.

Yonkang Hall

Yonkang Hall was constructed as part of DOOSAN's 100th anniversary project in 1993. Since its renovation in 2007, Yonkang Hall with a seating capacity of 620 has presented performances of various genres such as musical, play, and dance.

뮤지컬	HOPE: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20.11.19 — 2.21	HOPE: THE UNREAD BOOK AND LIFE
연극	안녕, 여름	4 — 5	GOODBYE, SUMMER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	5 — 8	MAMA, DON'T CRY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	9 — 11	THE CAPONE TRILOGY
뮤지컬	팬레터	11.30 — 22.3.27	Fan Letter

<HOPE>는 극작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유작 원고 반환 소송 실화를 모티브로 창작됐다. 베르트는 친구 요제프의 재능을 동경한다. 자신이 죽으면 원고를 모두 태워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제프가 남긴 원고를 소중히 보관한다.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요제프의 원고는 베르트의 연인인 마리와 딸 호프에게 전해진다. 살아 생전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 요제프는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게 된다. 이후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 호프에게 요제프의 유작 원고 반환을 요청하며 원고를 둘러싼 재판이 30년간 이어진다. 8세부터 78세까지 원고를 평생 지켜온 호프의 생애를 심도 있게 조명한다. 초연 당시 탄탄한 구성의 스토리와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다.

*HOPE* is inspired by the true story of the lawsuit over the ownership of Franz Kafka's posthumous work. Bert admires the talent of his friend Joseph. Despite the latter's urging to burn his manuscript upon his death, Bert holds dearly onto his friend's writings. One day, World War II breaks out and Joseph's manuscripts are passed onto Bert's lover Marie and her daughter Hope. Although hardly anyone read Joseph's works during his lifetime, Joseph posthumously becomes renowned as one of the great writers of contemporary literature. Later, 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 requests Hope to return Joseph's manuscripts, beginning 30 years of trials over the ownership of the materials. The musical closely portrays the life of Hope, who safeguarded the manuscripts from the age of 8 to 78. *HOPE* garnered much praise for its solid story and level of completion during its premiere.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뮤지컬  
부분 선정작  
2020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프로듀서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김효은/음악감독-신은경),  
여자 주연상(김선영), 여자 조연상(이예은)  
2019 에그린뮤지컬어워드 올해의 뮤지컬상, 극본상,  
올해의 배우상(김선영)  
2018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뮤지컬 부문  
선정작

제작: (주)알앤디웍스  
극본: 강남  
작곡: 김효은  
연출: 오루피나  
음악감독: 신은경  
안무감독: 채현원

화수목금 8시/토일공휴일 2시, 6시  
R석 88,000원/S석 55,000원

자유분방한 성격의 사진작가 태민과 남편의 내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여름은 결혼 6년 차 부부다. 무엇에도 얽매이기 싫어하는 철없는 태민은 자신을 향한 아내의 애정이 귀찮기만 하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기 원하는 여름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오키나와 여행을 제안한다. 부부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여행을 다녀오지만 태민은 여전히 무심하고,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에 여름은 이혼을 결심한다. 떠나려는 여름과 잡으려는 태민, 둘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와중에 아내 여름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진다.

<워터 보이즈>, <뷰티풀선데이>로 잘 알려진 일본 극작가 나카타미 마유미(中谷まゆみ)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The free-spirited photographer Tae-min and his devoted wife Yeoreum are a married couple of six year. Tae-min is immature and hates commitments, and is tired of his wife's affections towards him. Yeoreum, who wants to have a baby before it's too late, tries to reclaim her husband's heart and suggests Tae-min that they go on a trip to Okinawa. Although they go on the trip to save their marriage, Tae-min is still indifferent and Yeoreum decides to divorce her unrelenting husband. As Yeoreum tries to leave Tae-min and Tae-min tries to reclaim his wife, Yeoreum's hidden secrets start to unveil. Based on the original work by Japanese playwright Mayumi Nakatani, well-known for *Water Boys and Beautiful Sunday*.



©알앤디웍스

연출: 오루피나  
제작: (주)알앤디웍스  
제작투자: 엔에이치엔주식회사, (주)아페오드  
주관: 클립서비스(주)

시간 미정  
가격 미정

〈마마,돈크라이〉는 개성 강한 캐릭터와 흡인력 있는 스토리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조차 건네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프로페서V는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드라큘라 백작의 매력에 빠져 뱀파이어가 된다. 하지만 그 선택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피를 갈망하게 된다. 한편, 드라큘라 백작은 불멸의 삶을 사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죽음만을 바란다.

백작의 매력을 탐하는 프로페서V와 죽음을 갈망하는 드라큘라 백작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강렬한 록 비트의 넘버와 만나 관객을 사로잡는다.

*MAMA, DON'T CRY* has received the spotlight for its strong individualistic characters and immersive story. An introvert who can't even talk to his crush, Professor V falls becomes enchanted with Count Dracula who is loved by everyone and becomes a vampire. But his choice leads him to destruction, making him hunger for blood every night when the full moon rises. Meanwhile, Count Dracula curses his immortal life, longing only for death. The intense story between Professor V, who desires the charm of the Count, and Count Dracula, who craves death, come together with powerful rock beats and sweep the audience off their feet.



©알앤디웍스

극작·작사: 이희준  
작곡: 박정아  
연출: 오루피나  
음악감독: 김성수  
안무감독: 채현원  
제작: 페이지1, (주)알앤디웍스  
제작투자: 엔에이치엔주식회사, (주)아떼오드  
주관: 클럽서비스㈜

시간 미정  
가격 미정

〈카포네 트릴로지〉는 3가지 사건을 ‘코미디, 서스펜스, 하드보일드’라는 각기 다른 장르로 그려낸 유니버스 작품이다. 시카고에 위치한 렉싱턴 호텔의 비좁은 방 661호에서 1923년, 1934년, 1943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사건을 다룬다. 이 작품은 연극 작품이 가지는 형식과 틀에서 벗어난 색다른 구성으로 화제를 모았다.

*THE CAPONE TRILOGY* is an omnibus work that depicts three events in different genres of comedy, suspense and hard-boiled. It explores different events that took place in different times, in the room 661 in Lexington Hotel in Chicago, in 1923, 1934 and 1943. This work received special highlight for a unique composition that deviates from the conventional form and frame of play.



© (주)아이엠컬처

연출: 오루피나  
제작: (주)알앤디웍스, (주)아이엠컬처  
제작투자: 엔에이치엔주식회사, (주)아떼오드  
주관: 클럽서비스㈜

시간 미정  
가격 미정

〈팬레터〉는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2016년 초연에서 재연까지 창작 뮤지컬로는 이례적인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팬레터〉는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상과 김유정 그리고 경성시대 문인들의 모임 ‘구인회’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1930년대 경성, 팬레터를 계기로 문인들세계에 들어가게 된 작가 지망생의 성장 이야기다. 당대 문인들의 일화를 통해 그들의 예술세계와 사랑, 예술가들의 삶과 고민을 들여다본다.

*Fan Letter* is a creative musical based on the backgrou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where freedom was oppressed. Since its premiere and following performances, it was the only sold-out creative musical in 2016. Sang Lee and yujeong Kim, the representative novelists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Korean literary circle ‘Guinhoi’ in Gyeongseong Period are the motifs of *Fan Letter*. The play tells the story of maturation of an aspiring artist in Gyeongseong in 1930s who enter the literary circle via fan letters. Through the stories of the writers of the time, this play takes a look into their art world, love, life and agony.



©라이브㈜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창작뮤지컬 선정작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크리에이터 발굴지원사업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1 최종 선정작

주최·주관·제작: 라이브㈜

프로듀서: 강병원

연출: 김태형

극작: 한재은

작곡: 박현숙

화목금 8시/수 4시, 8시/토 3시, 7시/일공휴일 2시, 6시  
R석 88,000원/S석 66,000원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2007년 문을 연 Space111은 젊은 예술가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pace111 was opened to commemorate the 111th anniversary of the DOOSAN Corporation, and works on behalf of supporting young artist's innovative endeavors.

### 두산아트랩 2021: 공연

연극 카르타고	1.21 — 1.23	CARTHAGE
연극 동맹 아테네	1.28 — 1.30	ALLIANCE
연극 밤에 먹는 무화과	2.18 — 2.20	At night, Nobody's hotel
음악극 어느 별 좋은 날	2.25 — 2.27	I had a Nice day
연극 뜻밖의 여자-탈 연습	3.4 — 3.6	Unexpected Woman -Mask exercise
연극 클래스	3.11 — 3.13	CLASS
다원 펭귄어패럴 radio edition ver.1	3.18 — 3.20	Penguin Apparel radio edition ver.1
판소리 오버더떼창: 판소리 합창 가능성 탐구	3.25 — 3.27	Over the Crowd-singing of Pansori
음악 마이노-뒷전거리편	4.1 — 4.3	Mi-nyo-After party for Daed

### 두산인문극장 2021: 공정함

연극 웰킨	5.4 — 5.22	The Welkin
연극 편입생	6.1 — 6.19	Transfers
연극 당선자 없음	6.29 — 7.17	None Elected

###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김정 신작	10.5 — 10.23	New Work by Jeong Kim
음악극 윤미현 신작	11.9 — 11.27	New Work by Mihyun Yun

### DAC Artist

연극 김수정 신작	12.7 — 12.25	New Work by Sujung Kim
-----------	--------------	------------------------

### 공동기획

연극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4.10 — 4.25	Pigtail Hair and IMF
연극 산책하는 침략자	7.31 — 8.15	Before We Vanish

〈카르타고〉는 영국 극작가 크리스 톰슨이 12년간 젊은 범죄자와 아동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로 살아 온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감옥 안에서 태어난 토미는 보호관찰소에서 불안정한 유년시절을 보낸다. 어느 날 토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교도관, 어머니 그 누구도 토미의 죽음에 대해 쉽게 말하지 못한다.

신진호는 사회 시스템, 사회윤리를 주제로 한 작업에 집중한다. 연극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순적 사건들을 다룬다.

*CARTHAGE* is based on real-life experiences of British playwright Chris Thompson who lived as a social worker to protect young criminals and children for 12 years. Born in prison, Tommy spent an unstable childhood in probation office. One day, Tommy faces a sudden death, and his last moment is recorded on CCTV. But no one, including the social worker, the prison guard, or even his mother can talk about Tommy's death easily.

Jinho Shin focuses on works that center on social systems and social ethics. Through his plays, Shin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about the contradictory events that are happening in our society.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크리스 톰슨(Chris Thompson)  
연출: 신진호  
출연: 유독현 조하나 조수연 최호영 유민경 홍성민

〈동맹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리스 통일을 두고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전쟁 이후 간신히 30년 평화조약을 맺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하지만 두 국가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작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한다. 그 중 작은 섬나라 멜로스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지만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온전히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전쟁 속 국가 간의 갈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비춰본다.

김도영은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을 선보이며, 시대라는 커다란 흐름 속 기록되지 않은 개인의 역사를 다룬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성에 대해 탐구한다.

The background of *ALLIANCE* is set in the Peloponnesian War between Sparta and Athens over the unification of Greece. Sparta and Athens just manage to sign a 30-year peace treaty after the war. But the two countries prepare for the next war, occupying small countries one by one. Among the islands, the tiny island nation Milos declares neutral to protect the country, but is on the verge of collapse. This work reflects the history of Korea through conflicts between countries in a war that are affected entirely by the principle of power.

Doyoung Kim mainly presents works dealing with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is a writer who draws up and talks about the private history of the individual that remains unrecorded in the great flow of the times. Based on actual events, she explores various aspects of humanity that exist in it.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김도영  
연출: 민새롬  
출연: 박상종 이기돈 김정훈 김경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서로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채 떠나는 곳인 호텔. 윤숙은 그 오래된 호텔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70대 여성이자 무명 소설가다. 그는 누군가의 할머니도, 어머니도, 사모님도 아닌 유령같은 존재지만 호텔 로비에 앉아 소설을 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먼저 말을 건다.

〈밤에 먹는 무화과〉는 다양한 여성의 삶을 보여준 희곡집 『여자는 울지 않는다』에 실린 작품으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존재, 스쳐 지나가게 되는 존재들을 자리로 호명해본다.

신효진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창작자로 ‘쿵쾅프로젝트’와 극작가 동인 ‘괄호’에서 활동하고 있다.

Countless people come and go in an old hotel, but they all leave without having formed any connections with anyone. An unmarried woman in her 70s, Yoon-Sook is an unknown novelist and a long-term guest of the hotel. She is not anyone's grandmother, mother, or wife. Yoon sits in the hotel lobby, writing novels and talking to people passing by. *At night, Nobody's hotel* is a work in *Women shed no tears*, a collection of plays which illustrates the lives of various women.

Hyojin Shin is a writer who focuses on the voices of those who cannot be the main character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신효진  
연출: 이오진  
출연: 윤현길 백소정 정대용 양대은 라소영 신윤지 외

목금 8시/토 3시  
전석 무료

〈어느 별 좋은 날〉은 18세기 조선 말기 선비 유만주가 어찌다 세상에 남긴 일기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역사가를 꿈꾸는 독서왕 유만주는 하루하루가 바쁘다. 하루 빨리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에게 세상은 재미있는 것 투성이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만주는 그럼에도 삶을 사랑하고 싶어 일기를 쓴다. 웃기기도, 슬프기도 한 유만주의 일기를 들춰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본다.

창작집단 너나들이는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고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뮤지컬과 전통음악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새로운 무엇’을 찾아가는 작업을 지향한다.

*I had a Nice Day* is based on a diary left by Manjoo Yoo, an 18th-century scholar who happened to remain in the world. Every day is so busy for Manjoo, a book worm who dreams of becoming a historian. He knows he has to pass the exam as soon as possible, but the world is such a fun place for him. Although he dreams of things that are impossible to achieve, Manjoo writes a diary because he wishes to love life. Looking at the funny but sad diary of Manjoo, the audience has the opportunity to contemplate on how we much live this day that's granted to us.

The creative group Me and You and Everyone presents works through which “my” story can become “your” story, which can then become “our” story. It pursues works that attempt to narrow the gap between musicals and traditional music and find something new.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박예슬  
작곡: 조한나  
작창: 안이호  
연출: 신재훈  
출연: 안이호 이예지 외

목금 8시/토 3시  
전석 무료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뜻밖의 여자-탈 연습>는 성별을 두 가지로 규정짓는 젠더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벗어난 순간들을 다룬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녹취록을 그대로 재연하거나 상상력을 더한 연극적 형식을 함께 활용해 여성이 자신만의 언어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실험한다.

푸른수염은 극작가이자 연출인 안정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창작집단이다. 푸른수염 설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을 모티브로 시대를 향한 강한 의문과 호기심을 연극적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What are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women and men? *Unexpected Woman-Mask exercise* is based on actual interviews which focuses on moments that go beyond the dichotomy frame that defines the gender into two. Combining the reenactment of the actual recordings of the interviews and theatrical forms with added imagination, this work experiments with the various strategies for women to have their own language.

The Blue Beard Collectives is a creative group centering on the playwright-cum-director Jung-min Ahn. With the motif of a woman in the blue beard tale, the group explores their strong questions and curiosities toward the times through theatrical imagination.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안정민

출연: 오채령 마수연 정수경 이성하 김형진

음악: 김민정 김현수

무대: 김재란

조명: 이혜지

목금 8시/토 3시

전석 무료

<클래스>는 어느 예술학교의 극작 수업에서 벌어진 중견 극작가와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강사A와 학생B는 뜻하지 않게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A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적대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B 사이에는 묘한 불편함이 흐른다. 제출한 희곡이 매번 통과되지 않자 B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고 오고, 그들의 첨예한 논쟁이 시작된다.

진주는 우리 사회 이면에 숨어있는 목소리를 찾아 이야기하는 창작자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다문화, 결혼, 여성 등의 동시대 사회문제를 포착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을 통해 나이, 성별, 가치관 등 각자의 기준으로부터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CLASS is a story about a middle-aged playwright and student in a play writing class at an art school. Instructor A and student B unexpectedly happen to have one-on-one classes. There is a strange sense of uneasiness between B, who shows both blind faith and hostility towards A. When the submitted play fails to pass every time, B brings his own unfinished story, instigating their sharp debate.

Jinju is a writer who finds the voices hidden beneath our society, and has presented works that capture contemporary social issues such as multiculturalism, marriage, and women through all sorts of events, great and small. This work questions whether we can acknowledge each other in the midst of conflicts caused by the different individual standards such as age, gender and value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진주

연출: 이인수

출연: 이주영 정새별

목금 8시/토 3시

전석 무료

〈펭귄어패럴〉은 신림동 ‘펭귄시장’에서 작업하는 창작자인 신소우주와 지금은 사라진 구로공단 ‘대우어패럴’의 여공이었던 강명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한 프로젝트다. 2018년 선보인 〈펭귄어패럴, 그 여름 한 철의 이야기〉에서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미싱사와 초보 미싱사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노동의 환경, 동료와의 관계를 다뤘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과 함께 노동의 철학에 대한 발화를 기록한 〈펭귄어패럴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 시리즈의 연장선인 〈펭귄어패럴 radio edition〉은 봉제공장에서 미싱사들이 작업하며 틀어 놓는 라디오 사운드를 통해 전개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펭귄어패럴을 중심으로 모인 여성 협업자들은 미싱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교차하는 서로의 시간을 마주한다.

Penguin Apparel is a project which began by shinsowoozoo, an artist working at Penguin Market in Sillim-dong, and Myung-ja Kang, a female worker at the now-defunct Guro Industrial Complex's Daewoo Apparel. *Penguin Apparel: Story of One Summer*, presented in 2018, dealt with the labor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through a conversation between a veteran seamstress with 40 years of experience and a novice seamstress. Since then, they have shown projects that present the various talks conducted with women of diverse fields on the philosophy of labor. *Penguin Apparel radio edition*, an extension of the series, is based on a story that unfolds through radio sounds played by the workers while they work in the sewing factories. The female collaborators that are gathered centering around Penguin Apparel, sit at the sewing table and talk about their own narrative, and witness the coincidental exchanges that are made.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공동구성  
연출: 신소우주  
출연: 강명자 권영자 신소우주 외

목금 8시/토 3시  
전석 무료

〈오버더페창: 판소리 합창 가능성 탐구〉는 작창(作唱)을 통해 만들어지는 ‘판소리 합창’의 가능성을 엿보는 작업이다. 전통예술계에서 ‘작창’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인 의미로 공유되고 있지만, 실제로 각자 작창에 대해 생각하는 개념 설정은 서로 달랐다. 박인혜는 이번 작품에서 작창의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多)인의 소리꾼이 함께 노래하는 판소리 창작 과정을 보여준다. 1명이 노래할 때 그 아름다움이 극대화될 수 있는 판소리의 전통적 음악 양식을 염두하며 판소리 합창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박인혜는 ‘전승·보존’ 되는 판소리보다 창작의 무기(도구)로 활용하는 판소리에 더 관심이 많은 창작자다. 판소리 1인극, 창극,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창 작업을 해왔다.

*Over the Crowd-singing of Pansori* seeks to expand the boundaries of ‘Pansori chorus’, made of creative composition. The general concept of ‘creative composition’ is shared in the various forms of traditional art, but the background of such concept differ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In this work, Park has a clear idea of composition and its meaning, and shows the process of creating a singing pansori with multiple Korean traditional singers. Keeping in mind the traditional musical style of pansori where the beauty of singing is maximized when sung by a single person, Park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pansori as a chorus.

Inhye Park is a composer who is fascinated with pansori more as a tool (means) of composition rather than as an art form that should be ‘passed down and preserved’. Her composition works traverse across various genres including solo pansori, Changgeuk (Korean classical opera), musical and drama, etc.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창·구성: 박인혜  
출연: 박인혜 외

목금 8시/토 3시  
전석 무료

마이-노(Mi-nyo)는 민요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소리꾼 신승태만의 장르로 대중적인 민요 사이에 존재하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요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뒷전’의 시간은 본식인 열두거리 굿이 끝난 후,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굿판에 눌러 온 사연 많은 각종 잡신들을 위한 애프터 파티다. 때문에 뒷전거리는 좀더 사적이고 직설적이다.

신승태는 이러한 뒷전의 형식을 통해 동시대에 닿을 수 있는 재담과 가사를 찾아 경기민요와 결합해 본다. 과거에 만들어진 민요 가사가 담고 있는 해학과 풍자, 이면을 신승태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재담과 현대적 해석이 들어간 음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연결한다.

※ 거리: 무당굿의 한 절차를 세는 단위.

A genre inspired by folk songs, Mi-nyo is a genre specifically created by the traditional singer Seung-tae Shin. This work attempts to find the possibility of Mi-nyo, which is definitely similar to popular folk songs, but cannot be found anywhere. *Duitjerm* is an after-party for various miscellaneous gods with many stories who came to a Gut(Shamanistic ritual) after the end of the main ceremony of the 12 *Geori* (a unit for counting one procedure of a Gut) *Gut* and all the guests have left. Therefore, *Duitjerm* is more private and straightforward.

Through the form of *Duitjerm Gut*, Seung-tae Shin finds with, humor and lyrics that can be communicated in the contemporary age, and combines it with Gyeonggi folk songs. The humor and satire in the Mi-nyo lyrics produced in the past connect to our lives today, through Shin's music of wit and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that demonstrate his unique individuality.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구성: 신승태  
음악: 신승태 이향하 이태훈  
출연: 신승태 이향하 이태훈 외

목금 8시/토 3시  
전석 무료

〈웰킨〉은 〈차이메리카 Chimerica〉(2013)로 잘 알려진 영국 극작가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의 2020년 신작이다. 1759년 영국의 외딴 지역에서 마을 유지의 딸이 잔혹하게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된다. 용의자는 유지의 저택에서 하녀로 일하던 21세 여성 샬리 포피. 사형을 선고받은 그녀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며 감형을 탄원한다. 12명의 부녀(婦女) 배심원들은 임신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법정 위층에 자리한 다락방으로 모인다. 여성들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계급·종교·법·성별 등의 공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한다. 〈웰킨〉은 2020년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에서 초연했고, 한국에서는 이번 두산인문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다.

The Welkin is a new work produced in 2020 by British playwright Lucy Kirkwood, well-known for *Chimerica* (2013). In 1759, the daughter of a village leader was found brutally murdered in a remote area of England. The suspect is Sally Poppy, a 21-year-old woman who worked as a maid in the leader's mansion. Sentenced to death penalty, Poppy pleads for a reduced sentence, saying she is pregnant. Twelve women members of the jury gather in the upstairs attic in the court in order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Poppy's pregnancy. Women constantly question and explore the issues of equality in labor, class, religion, law, gender, etc. in the process of finding the truth. *The Welkin* premiered at the National Theatre in UK in 2020, and will debut in Korea as part of the DOOSAN Humanities Theater serie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번역: 김수아  
연출: 진해정  
제작협력: 하지스토리

화수목금 7시 30분/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편입생〉은 미국 극작가 루시 서버의 작품으로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뉴욕 빈민촌 출신 클라라스와 크리스토퍼는 동부 명문대 편입을 앞두고 있다. 친구였던 두 사람은 면접을 하루 앞둔 날 밤 우연히 다시 만난다.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빈곤한 환경 때문에 학업에 매진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직원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관의 눈에 들어야 하는 두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감추고 면접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고민한다. 2018년 초연 당시 교육계 전반과 대입 기준의 부조리함을 고찰하는 연극으로 호평 받았다. 제11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수상자인 윤혜숙이 연출을 맡는다.

*Transfers* was written by American playwright Lucy Thurber, and deals with equality in the education system. Clarence and Christopher from New York's slums, who graduated from a two-year college, are about to transfer to a prestigious university in the Eastern part of US. The two young men, who used to be friends, coincidentally run into each other on the night before their entrance interview. The two, who have outstanding talents but were unable to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due to their poverty-stricken environment, will conduct a mock interview with the help of David, an employee from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who supports them. The two, who must look good in front of the interviewer, fall into the dilemma of deciding whether to show themselves as they are or to hide themselves and show what the interviewer wants to see. At the time of its premiere in 2018, the play received rave reviews as a work that examines and critiques the absurdity of the overall educational system and college entrance standards. The play will be directed by Hyesook Youn, the winner of the 11th DOOSAN Artist Award for Performing Art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루시 서버(Lucy Thurber)  
번역: 한원희  
연출: 윤혜숙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당선자 없음〉은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로 구성된 제헌 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실제 문헌과 회고록, 평전 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와 상상력을 더해 의회 바깥에서 벌어진 헌법 제정의 이면을 보여준다. 헌법과 정부가 만들어진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정의 혹은 공정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초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합의'된 것인지 그 '사회 계약'의 과정을 보여준다.

〈복도에서〉로 '올해의 연극 베스트3'을 수상한 이양구 극작가가 쓰고, 〈인정투쟁; 예술가 편〉으로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을 수상한 이연주가 연출한다.

*None Elected* is based on a time when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which consists of an independent election in South Korea, enacted the Constitution and declar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May 10, 1948. Adding stories and imagination based on actual literature, memoirs and critical biography creat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nstitution, it shows the other side of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that took plac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This play shows us through what process the Co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have been "agreed upon" in the first place by what we take for granted as being just and fair today, and demonstrates the process of such "social contract".

The play will be written by Yanggu Yi who won 'Top 3 Plays of 2014', and directed by Yeonjoo Lee who won Dong-A Theater Award.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이양구  
연출: 이연주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연극 **김정 신작**

제9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2018)

10.5 — 10.23

**New Work by Jeong Kim**

Recipient of the 9th DOOSAN Artist Award(2018)

2018년 제9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수상자 김정의 신작을 선보인다. 김정은 극단 '프로젝트 내친김에'를 이끄는 연출가로 연극 <레드 올랜더스>, <Farm>, <손님들>, <처의 감각>, <임영준햄릿> 등의 작업을 통해 신화와 실화, 현실과 꿈의 공간을 오가며 시청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독특한 연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의 연극은 고전 희곡부터 번역극, 국내 작가의 창작극에 이르는 다양한 텍스트를 디테일한 분석과 창의적인 해석을 통해 연극적으로 재탄생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This is the new work by Jeong Kim, the recipient of the 9th DOOSAN Artist Award for Performing Arts in 2018. The director who leads the theater group Project While, Kim traverses across spaces of myths, true stories, reality and dreams, presenting a unique theatricality that produces visually unpredictable sense of tension in works such as *Red Oleanders*, *Farm*, *The Visitors*, *A Wife's Sensitivity*, and *Lim YoungJun Hamlet*. Kim's play is acclaimed to have the power to theatrically recreate various texts, ranging from classical plays to translated plays, and original plays by Korean writers, through detailed analysis and creative interpretation.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  
연출: 김정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56

Space111

음악극 **윤미현 신작**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2019)

11.9 — 11.27

**New Work by Mihyun Yun**

Recipient of the 10th DOOSAN Artist Award(2019)

2019년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수상자 윤미현의 신작이다. 윤미현은 연극 <텍사스 고모>,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희>,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메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창작오페라 <텃밭킬러> 등을 선보이며 제55회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의 희곡은 예상을 벗어나는 전개와 재현적, 탈재현적 글쓰기의 줄타기를 통해 자신만의 언어를 표현한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포착해내며 윤미현 식의 리얼리즘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Mihyun Yun, the recipient of the 10th DOOSAN Artist Award in 2019 presents a new work. Also the winner of the 55th Dong-A Theater Award for Best Play, Yoon has also created plays *MY AUNT IN TEXAS*, *Granny from Granny Flower Bar Said She'll Give Me Melon Seeds*, *There She Goes Again With the Basket on Her Head*, and creative opera *Garden Killer*, etc. Yun expresses her own theatric language through unexpected development, and tight tension between representational and post-representational writing. The play was evaluated to demonstrate Yun's stylistic sense of realism which has drawn realistic portrayal of contemporary society in her various work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극단(공동제작 예정)  
작: 윤미현  
연출: 윤한솔  
작곡: 나실인

화수목금 8시/토일 4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57

Space111

2019년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로 관객들과 만났던 DAC Artist 김수정의 신작이다. 김수정은 우리가 외면하고 불편해 하는 이야기 속 균열과 갈등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연출가다. 2015년부터 극단 신세계를 이끌며 폭력, 차별, 불안 등을 이야기했다. 주요 작품으로 연극 <파란나라>, <광인일기>, <공주(孔主)들>, <그러므로 포르노> 등이 있으며 한국사회의 맨 얼굴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 연극 <파란나라>로 제54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을 수상했고, <공주(孔主)들>로 제40회 서울연극제 '우수상'을 받았다.

This is a new work by DAC Artist Sujung Kim, the director of the play *EGALIA'S DAUGHTERS: A Satire of the Sexes* in 2019. Kim is a director who constantly asks questions and explores the ruptures and conflicts in stories that we turn a blind eye to and find uneasy. Leading the theater troupe New World since 2015, Kim's works have explored themes of violence, discrimination and anxiety. Acclaimed to shed light on the bare face of Korean society, Kim's major works include plays such as *The Blue Nation*, *A Madman's Diary*, *Princesses: Master of their holes*, and *Therefore Pornography*. Kim won the 54th Dong-A Theater Award for New Concept Theater Award for *The Blue Nation*, and the 40th Seoul Theater Festival Best Award for *Princesses: Master of their hole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연출: 김수정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어느 날 엄마는 자신의 머리를 양갈래로 땋기 시작한다. 가족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보인다. 엄마는 양갈래머리를 한 그날부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엄마의 인생에서 특별했던 시간을 알게 된다.

2019년 두산연강예술상, 벽산희곡상과 2018년 동아연극상 희곡상 등을 수상한 극작가 윤미현의 작품이다. IMF 외환 위기를 지나온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부조리한 삶을 들여다본다.

One day, Mom starts braiding her hair in two braids. This puzzles the family, but the mother looks happy. Mom tells stories that she hasn't known since the day she split her hair, and the family comes to find out about the special time in their mother's life. This is a work by playwright Mihyun Yun, who won the 2019 DOOSAN Artist Award and the Byeoksan Play Award, as well as the 2018 Dong-A Theater Award. The work illuminates our life through an ordinary family who has lived faithfully since the IMF crisis.

기획: 두산아트센터, 플티(주)  
제작: 플티(주)  
작·연출: 윤미현  
출연: 이호성 이영석 윤상호 김국진 황미영 박하늘  
이기현 신장환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화수목금 8시/토일 4시 \*4.21(수) 4시, 8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산책하는 침략자〉는 일본 극작가 마에카와 토모히로의 작품으로 평범한 부부를 중심으로 지구를 침략하러 온 외계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지구 정복을 위해 사전 탐사를 온 외계인들은 인간의 몸에 영혼처럼 침투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수집한다. 외계인이 인간의 개념을 하나씩 수집할수록 점점 ‘교육되고 사회화된 인간’처럼 변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알던 개념을 상실해간다.

이 작품은 인간다움을 빼앗긴 개인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조차 믿지 못하는 사회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Before We Vanish* is a work by Japanese playwright Tomohiro Maekawa, which tells the story of aliens who came to invade the Earth centering on an ordinary couple. Aliens who have come for pre-exploration to conquer Earth penetrate into the human body like souls to collect their “concepts”. The more human concepts the aliens collect, the more they become like “educated and socialized humans,” but humans start to lose the knowledge of concepts they once knew. This asks questions about the “essence of human beings” through an individual who’s lost his humanness and a society that doesn’t believe in what’s going on right in front of i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옥상훈

기획: 두산아트센터, 창작집단 LAS

제작: 창작집단 LAS

작: 마에카와 토모히로(前川知大)

번역: 이흥이

연출: 이기쁨

출연: 윤성원 한송희 이강우 권동호 장세환 한수림

김희연 김대웅 김연우 고영민 임현국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40,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두산갤러리는 두산연강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갤러리로 2007년 서울에 개관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 첼시에 두산갤러리 뉴욕과 두산레지던시 뉴욕을 마련해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작품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DOOSAN Gallery is a non-profit gallery founded in 2007 by DOOSAN Yonkang Foundation in Seoul. In 2009, DOOSAN Gallery opened DOOSAN Gallery New York and DOOSAN Residency New York in Chelsea. DOOSAN Gallery New York aspires to introduce emerging Korean artists to audiences abroad, as well as to support their artistic endeavors.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아트랩 2021: 전시	1.13 — 2.20
이우성 개인전	3.3 — 3.31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14 — 5.12
이형구 개인전	5.26 — 6.30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7.14 — 8.18
김경태 개인전	9.8 — 10.16
오종 개인전	11.10 — 12.18

**DOOSAN Gallery Seoul**

DOOSAN Art LAB 2021
Woosung Lee
DOOSAN Humanities Theater Special Exhibition
Hyungkoo Lee
DOOSAN Curator Workshop Exhibition
Kyoungtae Kim
Jong Oh

**두산갤러리 뉴욕**

이윤이 개인전	1.14 — 2.13
오종 개인전	3.4 — 4.3
김주원 개인전	4.22 — 5.22

**DOOSAN Gallery New York**

Yunyi Yi
Jong Oh
Juwon Kim

두산갤러리 서울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현황을 보여주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젊은 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과 무료 미술강좌인 두산아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DOOSAN Gallery Seoul supports young Korean artists by exhibiting their works; present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ontemporary art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In addition, DOOSAN Gallery Seoul offers diverse programs to expand the horizon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cluding DOOSAN Curator Workshop, which fosters emerging curators, and DOOSAN Art School, which offers a series of lectures for the general public.

두산아트랩은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미술 분야는 2015년부터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했으며, 2021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만 35세 이하 작가를 선정하여 소개한다. <두산아트랩 2021>에서는 김세은, 박정혜, 오연진, 오희원, 이준아의 작품을 선보인다.

DOOSAN ART LAB is an artist support program launched in 2010. In the fine art field, the program has discovered and supported new promising artists since 2015, and has selected and introduced artists under the age 35 through open call since this year. DOOSAN ART LAB 2021 presents works by Seeun Kim, Junghae Park, Yeonjin Oh, Heewon Oh, and Juna Lee.

## 이우성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2020)

3.3 — 3.31

## Woosung Lee

DOOSAN Residency New York  
Open Call(2020)

이우성은 2020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 작가다. 작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을 찾아 이를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 '생활과 그림'을 주제로 패브릭을 사용한 회화부터 온라인 만화 드로잉까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관람객과 그림이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매체의 변화로 이어져 형태를 가지지 않은 감각들을 가시화하는 상상을 통한 그리기 방법을 선보인다.

Woosung Lee is an artist selected in the open call for 2020 DOOSAN New York Residency program. Lee finds subjects in everyday life, and translates them into paintings. From works in fabric focusing on the subject "life and painting" to online cartoon drawings, Lee contemplates on the diverse ways the audience encounters art works through various attempts. Lee's interests have expanded to changes in the methodology of drawing and the medium, becoming manifest in drawing through imagination that visualizes formless senses.



##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두산인문극장 2021: 공정함

4.14 — 5.12

## DOOSAN Humanities Theater Special Exhibition

DOOSAN Humanities Theater 2021:  
Fairness

두산인문극장은 매년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2021년에는 '공정함'을 주제로 기획전을 선보인다.

The DOOSAN Humanities Theater selects a theme every year and approaches it in various ways, including performances, exhibitions, lectures, and artist talks. In 2021, a special exhibition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Fairness".

## 이형구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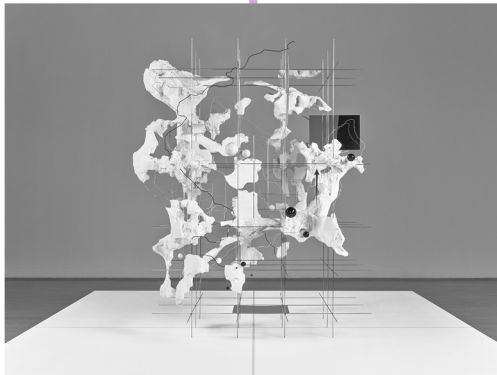
5.26 — 6.30

## Hyungkoo Lee

DOOSAN Residency  
New York(2009)

이형구는 그동안 신체 일부분을 확대, 왜곡해 보여주거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의 골격구조를 역추적하는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작가는 신체의 변형과 왜곡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과학자의 연구 방법과 예술적 창조력을 더한 작품을 선보였다. 실재와 가상 사이에서 신체적 변형에 대한 작업을 지속해온 이형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감각기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제시한다.

Hyungkoo Lee has shown a series of works that enlarge and distort parts of the body or trace back the skeletal structures of animation characters. Focusing on his interest in the transformation and distortion of the body, Lee presented works that integrate scientist's research methodology and artistic creativity. Continuing to work on physical transformation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Lee presents his new study of sensory organs through this exhibition.



##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맹나현 전민지 정해선

7.14 — 8.18

## DOOSAN Curator Workshop Exhibition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은 매년 3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1년 동안 현대미술의 이론과 현장을 함께 연구한다. 2020년에 선정된 3명의 큐레이터 맹나현(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전민지(국립현대미술관 코디네이터), 정해선(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2과)이 공동 기획한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The DOOSAN Curator Workshop selects three curators each year to study the theory and field of contemporary art together for a year. An exhibition will be jointly organized by Nahyun Maeng(Assistant Curator,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Minji Chun(Coordin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d Haesun Chung(Exhibition Team 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three curators who were selected for 2020 DCW.

## 김경태 개인전

제11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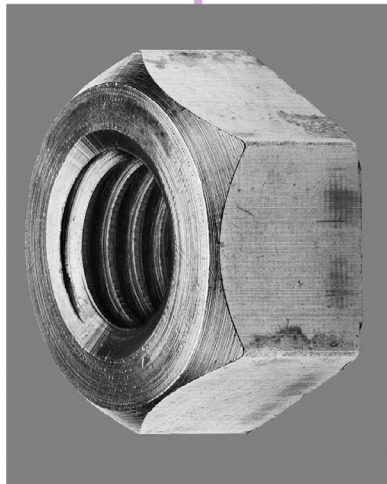
9.8 — 10.16

## Kyoungtae Kim

Recipient of the 11th DOOSAN  
Artist Award(2020)

김경태는 2020년 제11회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수상 작가로 사물에 대한 집요한 관찰을 통한 사진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김경태의 작업은 먼저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는 시선을 통해 감상의 방식을 집중시킨다. 사물의 각 지점이 고르게 구현되고, 확대된 상태의 익숙하면서도 생경한 이미지는 그간 조금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관람객의 시선을 고른 호흡으로 한곳에 머무르게 한다.

The recipient of the 11th DOOSAN Artist Award in 2020, Kyoungtae Kim has received acclaim for his photographic works which show a persistent observation of things. Kim's work first focuses on the way of art appreciation through a gaze that observes an object. With each point of the object rendered evenly, the familiar yet strange image in its enlarged state invites the impatient and frenzied gaze of the audience to rest in one place in a calm breath.



## 오종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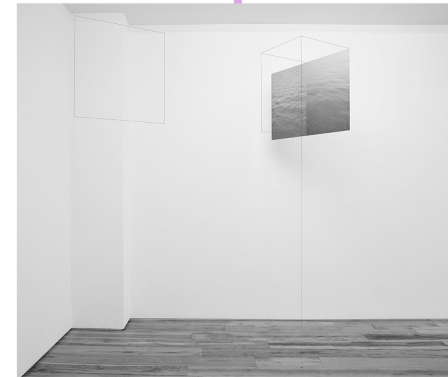
11.10 — 12.18

## Jong Oh

DOOSAN Residency New York  
Open Call(2020)

오종은 2020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 작가다. 그는 실, 철사, 나무 막대, 연필 선 등 단순하고 섬세한 재료들로 다양한 조형 요소들을 만들며 새로운 건축적 공간을 창출하는 설치작업을 해왔다. 작가가 사용하는 보일 듯 말 듯한 선적인 재료들은 공간에 존재하는 중력, 빛, 그림자와 만나 시시각각 다른 반응을 만들고 미세한 장력을 형성하며 팽팽한 긴장과 떨림을 조성한다. '공간과의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의 작업은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관람객에게 공간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Jong Oh is an artist selected for 2020 DOOSAN New York Residency program. His installation works create new architectural spaces, using the diverse sculptural elements using simple yet delicate materials like thread, wire, wooden sticks and pencil lines, etc. The barely visible line-like materials, combined with gravity, light and shadow in space, create different reactions each time, forming fine pressure and creating tight tension and vibrations. Described as "conversation with space", Oh's work invites the audience to perceive space in such sense of tension.



두산갤러리 뉴욕은 2009년 뉴욕 주정부와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고 뉴욕 첼시지역에 설립한 비영리 갤러리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 작가들에게 뉴욕에서의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vides emerging Korean artists with private studio space and housing for six months. Our support includes a solo exhibition opportunity and various programs that allow the artists to interact with the art scene and audiences in New York and have broadened cultural experiences.

제9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2018)

Recipient of the 9th DOOSAN Artist Award(2018)

이윤이는 2018년 제9회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수상 작가다.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실재와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를 시적인 언어와 음악을 통해 영상, 설치 등의 매체로 작업한다. 음악 및 텍스트로 정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영상을 다시 오브제 설치로 보여주거나 이질적 무대에서 의미를 변주하고 조응 시킨다. 그는 다양한 매체들을 동시에 사용해 타인과 사물을 보여줌으로써 기묘하게 치환되고 확장되는 세계를 보여준다.

Yunyi Yi is the recipient of the 9th DOOSAN Artist Award in 2018. Her videos and installation works tell narratives combining fiction and nonfiction based on her own experiences and memories, through poetic language and music. She draws out emotions through music and text, making her videos which are then shown in installations or shown on different settings to vary and control the meaning of her work. Lee presents a world that's strangely transposed and expanded by showing others and objects through the simultaneous use of diverse mediums.



## 오종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2020)

3.4 — 4.3

## Jong Oh

DOOSAN Residency New York  
Open Call(2020)

오종은 2020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 작가다. 그는 실, 철사, 나무 막대, 연필 선 등 단순하고 섬세한 재료들로 다양한 조형 요소들을 만들며 새로운 건축적 공간을 창출하는 설치작업을 해왔다. 작가가 사용하는 보일 듯 말 듯한 선적인 재료들은 공간에 존재하는 중력, 빛, 그림자와 만나 시시각각 다른 반응을 만들고 미세한 장력을 형성하며 팽팽한 긴장과 떨림을 조성한다. ‘공간과의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의 작업은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관람객에게 공간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Jong Oh is an artist selected for 2020 DOOSAN New York Residency program. His installation works create new architectural spaces, using the diverse sculptural elements using simple yet delicate materials like thread, wire, wooden sticks and pencil lines, etc. The barely visible line-like materials, combined with gravity, light and shadow in space, create different reactions each time, forming fine pressure and creating tight tension and vibrations. Described as “conversation with space”, Oh’s work invites the audience to perceive space in such sense of tension.



## 김주원 개인전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2019)

4.22 — 5.22

## Juwon Kim

Recipient of the 10th DOOSAN  
Artist Award(2019)

김주원은 2019년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 수상 작가다. 주변의 장면을 수집하고 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진을 새롭게 읽어내는 행위를 보여준다. 다큐멘터리적으로 수집된 현실과 개인의 사적인 기억을 뒤섞어 작품에 드러내는 김주원은 사진의 고전적인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작가의 방식으로 새롭게 선별되고 배치된 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관람객이 스스로 작가의 작업 과정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

Juwon Kim is the winner of the 10th DOOSAN Artist Award in 2019. He collects scenes in his surrounding and expresses them through his own perspectives, suggesting the gesture of reading photography in a new way. Mixing reality collected in a documentary style with personal memories of the individual, Kim testifies to the classical power of photography. Newly selected and arranged the way desired by the artist, the photographs are interpreted in various methods depending on how they are viewed, and prompt the viewers themselves to intervene in the work process of the artist.



**연강홀 대관**

**대관기간** 2022년 4월~2023년 2월

**공모대상** 자격·장르 제한 없음,  
재공연 작품 가능

**신청일정** 2021년 4월 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신청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문의**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webmaster@

doosanartcenter.com

**Annual Yonkang Hall Rental Competition**

**Venue availability**

- April 2022-February 2023

**Eligible applicants**

- No restrictions on eligibility / genres;  
re-runs are eligible

**Application period**

- April 2021

☆ Check the homepage for details on the application period and method

**Application method**

-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from DOOSAN ART CENTER website, and submit the filled form via email

**Enquiry**

- webmaster@doosanartcenter.com

**예매 방법**

-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매  
- 공연/강연 관람 1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  
(doosanartcenter.com)

☆ 예매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전시는 예매 없이 무료 관람

**Reservations Method**

- Log in to the homepage of DOOSAN ART CENTER and purchase tickets  
- Available up to 5:00 p.m. the day prior to the performance.  
- DOOSAN Gallery is admission Free.

**티켓 수령**

- 공연/강연 당일, 티켓박스에서 티켓 수령 시  
예매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예매내역서 또는  
예매 문자 확인

**Ticket Pickup**

- At the ticket box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to receive tickets, please present identification(identity card, driver's license), a reservation statement, or a text message reservation confirmation.

**환불 및 변경**

- 환불은 공연 시작 1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  
- 환불 수수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공연업 규정에 따라 적용  
- 티켓은 유가증권이므로 분실 시 환불 불가  
- 예매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 후 재예매

**Refunds and Changes**

- Ticket refunds and changes are available up to 5:00 p.m. day prior to the performance.  
- The ticket refund fee is subject to the performance industry provisions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Korea Fair Trade Commission Notification No. 2014-4).  
- A ticket is a negotiable security and cannot be refunded in the event of loss.  
- To modify a reservation, please cancel the reservation and then re-reserve it.

**티켓박스 오픈**

- 연강홀, Space111  
공연/강연 시작 1시간 전  
☆ 오픈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Ticket Box Open**

- Yonkang Hall Tuesday-Sunday, 1 hour prior to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Space111 Tuesday-Sunday, 1 hour prior to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 Tim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두산아트센터 회원안내

- 가입** 홈페이지 가입(무료)
- 혜택** – 예매 수수료 무료
- 무료 공연, 강연 예매 가능
  - 공연 할인(공연에 따라 다름)
  - 프로그램 정보 및 프로모션 제공(수신 동의자에 한함)

**DOOSAN ART CENTER Membership Join**

- You may subscribe through DOOSAN ART CENTER homepage
  - Subscription is free
- Benefits**
- No booking fee
  - Discount on show ticket(5~25% depending on the show)
  - Direct mails concerning information on events(only tonthose agreeing to receive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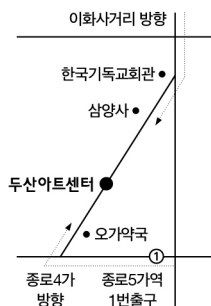
우수 회원: 다트(D-Art) 클럽 혜택

- 조건** – 연간 공연 최다 관람 회원 상위 150인(공연 수 기준)
- Space111, 연강홀 유료 공연 중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구매에 한함
- 추가 혜택**
- 제작공연 프레스콜, 연습실 초대
  - 다트클럽 단독 굿즈 증정(매년 1회)

☆ 2021년 다트클럽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의 공연이 무료 전환 및 취소되어 한 해 쉬어 갑니다. 2022년 다트클럽 선정 및 발표는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D-Art Club Membership Who are eligible**

- Top 150 members with the highest performance attendance(based on the number of shows)
  - Only for paid shows at Space111 and Yongkang Hall purchased from DOOSAN ART CENTER website
- Additional benefits**
- Press call to production performance, and invitationnto the rehearsal
  - D-Art Club exclusive event
  - D-Art gift of an art product from DOOSAN ART CENTER(once a year)



1호선 종로 5가역 1번 출구,  
오가약국 골목으로 30m

관람객 2시간 무료주차  
(초과 시 10분당 1,000원)

tel. 02-708-5001  
fax. 02-708-5010  
doosanartcenter.com

## SNS

youtube.com/doosanartcenter  
instagram.com/doosanartcenter  
facebook.com/doosanartcenter  
twitter.com/doosanartcenter  
podbang.com/ch/7508  
instagram.com/doosan\_gallery\_seoul  
instagram.com/doosan\_gallery\_newyork

## 두산아트센터

### DOOSAN ART CENTER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우)03129  
15, Jongno 33-gil, Jongno-gu,  
Seoul 03129, Korea  
(+82)2-708-5001  
webmaster@doosanartcenter.com  
doosanartcenter.com

## 두산갤러리 서울

### DOOSAN Gallery Seoul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우)03129  
15, Jongno 33-gil, Jongno-gu,  
Seoul 03129, Korea  
(+82)2-708-5050  
doosangallery.seoul@doosan.com

## 두산갤러리 뉴욕

### DOOSAN Gallery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1)212-242-6343/6484  
doosangallery.ny@doosan.com

## 두산레지던시 뉴욕

### DOOSAN Residency New York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1)212-242-6343/6484  
doosangallery.ny@doosan.com